



수험소식 및 수험자료

지역외교·외교전문분야 외교관후보자선발 시험방법 변경

-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11일 입법예고 -

I. 개요

1. 2019년부터 지역외교 및 외교전문 분야의 외교관후보자선발 시험방법이 경력경쟁채용시험과 같이 필기시험(1차)과 서류전형(2차), 면접시험(3차)으로 바뀐다.

※ (현재) 공직적격성평가(PSAT)(1차, 한국사 및 영어 검정대체)→논문형 필기(2차)→면접평가(3차)
→ (변경) 공직적격성평가(PSAT)(1차, 한국사 및 영어 검정대체)→서류전형(2차)→면접평가(3차)
-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 한다.

2. 이번 개정안은 인사혁신처가 올해 1월 2018년도 시험계획을 공고하면서, 지역외교 분야 및 외교전문 분야는 2019년부터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으로 선발할 예정이라고 사전 안내한 내용을 입법화하는 것이다.

3. 현재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은 3개 분야로 구분되는데, 응시요건이 없는 일반외교 분야와 달리 지역외교 분야와 외교전문 분야는 소정의 경력·학위를 요구하고 있다. 현장에 밝은 특수지역 전문가와 특정업무에 정통한 전문가를 공직에 유치하기 위해서이다.

※ 지역외교 분야 :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러시아·CIS, 아시아 / 외교전문 분야 : 경제외교(국제경제, 국제무역, 에너지자원 및 환경 등), 다자외교(공적개발원조, 인권, 군축 등)
- 그러나 경력채용에서 요구하는 응시요건에 비해 지역외교와 외교전문 분야의 응시요건이 낮아 현장 전문가 채용요건으로는 다소 부족하고, 경력채용에 비해 필기시험 부담이 너무 커 실무 전문성이 높은 민간 우수인재가 지원을 꺼린다는 우려가 있어왔다.

4. 이에 따라 외교현장의 요구에 맞게 특수지역 및 특정업무 전문가를 선발한다는 시험 취지를 살려 응시요건을 강화하는 대신,

※ 지역외교·외교전문 분야 응시요건 변경

구분	응시요건(현행)	변경(2021년 시행)*
관리자 경력	2년	3년
일반 경력	7년	10년
학위	석사 + 2년	석사 + 4년

* 경력채용 응시요건

- 필기시험의 부담을 줄여 전문성이 높은 민간 우수인재의 관심과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시험 방법을 변경하는 것이다.

5. 개정안은 2019년부터 적용되지만, 변경되는 응시요건은 수험생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2년 유예 후(2021년부터) 적용된다.

- 지역외교 및 외교전문 분야의 면접시험도 현재보다 강화된다. 현재의 평가항목에 응시지역, 업무전문지식 평가가 추가된다.

II. 「공무원임용시험령」 주요 개정 사항

구분	주요 내용	관련 조항
지역외교 분야 및 외교전문 분야의 시험방법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행) 1차[PSAT, 영어(검정), 한국사(검정)] → 2차 (논술형 필기시험) → 3차(면접시험) ·(개정) 1차[PSAT, 영어(검정), 한국사(검정)] → 2차(서류전형) → 3차(면접시험*) * 현행 외교관후보자 면접(공직가치·인성, 직무역량 검증) + 특수지역이나 특정업무에 대한 전문성 면접 	제23조의 2, 별표2
지역외교 분야 및 외교전문 분야 3차시험 불합격자에 대한 다음 회의 1차시험 면제 적용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행) 3차시험 불합격자에 대한 다음 회의 1차 시험을 면제 ·(개정) 1차 시험 면제 규정 적용 제외 * 다만, 2018년 3차시험 불합격자에 대해서는 수험생 신뢰 보호를 위해 2019년 1차시험을 면제 	제23조의 2

Ⅲ. 보도자료 관련 Q&A

Q1.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서 일반외교, 지역외교, 외교전문 분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 일반외교 분야는 외교통상 일반에 대한 업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선발하는 분야로서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는 반면,
- 지역외교 분야는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등 특수 지역에, 외교전문 분야는 통상, 국제법 등 특정업무에 정통한 전문가를 선발하기 위한 분야로 소정의 경력 및 학위를 응시요건으로 정하고 있음

Q2. 지역외교·외교전문 분야의 선발규모 및 경쟁률은?

- 최근 3년간 지역외교 분야의 평균 선발예정인원은 약 6명이며, 평균 출원인원은 약 124명으로 평균 경쟁률은 약 19.5:1이었음
- 외교전문 분야는 최근 3년간 평균 선발예정인원이 2명이며 평균 출원인원은 약 25명으로 평균 경쟁률은 약 7.7:1이었음
 - ※ 일반외교 분야의 경우 최근 3년간 평균 선발예정인원 약 34명이며, 평균 출원인원은 약 1,156명으로 평균경쟁률은 약 34.3:1명이었음

Q3. 시험방법이 민경채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2차 시험방법이 논술형 필기시험에서 서류전형으로 변경되는데, 전문성에 대한 검증이 약해지는 게 아닌지?

- 해당분야에 대한 현장경험이 없는 응시생에 대해서는 필기시험을 통한 검증이 필요하지만,
 - 일정의 자격요건과 전문성과 경험을 지닌 민간경력자 응시생은 면접으로, 해당 분야에 필요한 인재인지를 충분히 검증할 수 있음
- 지역외교 및 외교전문 분야 응시자에 대해 내년부터는 현재의 외교관후보자 면접시험의 평가항목에 더하여, 응시자가 지원하는 지역 또는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추가로 평가하여 전문성을 철저히 검증하게 됨

Q4. 앞으로 지역외교 및 외교전문 분야에 대한 면접시험은 현재의 외교관후보자 면접시험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 현재 외교관후보자 면접에서도 직무역량을 평가하고 있으나, 외교통상 일반에 대한 지식과 역량에 초점을 두고 있음
- 내년부터 지역외교 및 외교전문 분야 면접은 현재의 외교관후보자 면접*은 그대로 보면서, 추가로 응시자가 지원한 특수지역 또는 특정업무에 대한 지식과 역량을 검증한다는 차이가 있음
 - * △집단심화토의(과제검토 40분, 토의 100분), △직무역량 면접(과제검토 30분, 발표·면접 40분) △공직가치·인성 면접(과제검토 30분, 개별면접 40분)